

2019년 10월 1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김상경(044-201-2511), 서기관 정재환(2515)

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박찬용(044-201-6527), 사무관 심은수(7243) / 제공일: 10월 15일(총3매)

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지원을 강화하고, 철저한 방역 관리 중 [서울신문 10.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정부는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해 살처분보상금, 생계안정자금 등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,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, 안전성 홍보 등을 추진 중임
- 북한 발생 통보 이후부터 정부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와 야생멧돼지 예찰 등을 추진했으며, 상황에 따른 방역조치를 즉시 시행하였으며, 야생멧돼지 ASF 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로 발생지역 외곽의 멧돼지 제거를 위한 방역조치를 추진 중임
- 10월 15일자 서울신문 <산지값 폭락·살처분 보상 절감... 양돈 농가는 이중고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

주요 언론 보도내용

- 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값이 폭락하며 마리당 1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, 살처분 보상도 일부 돼지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운데 접경지역 양돈농가는 앞으로 사업을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불안감이 크다는 내용 보도
- ☐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포획을 시작해 돼지값 폭락이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입장

-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협, 생산자단체 등과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 - SNS 등을 활용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고기는 유통되지 않고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하는 한편,
 - 교육부, 국방부, 영양사협회 등에 학교·군 등의 단체급식에서 소비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, 급식 메뉴 편성 확대 캠페인 등도 실시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
- 방역조치에 따른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, 소득안정자금,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 - 발생 농장,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보상금을 시세 기준으로 100% 지급하고, 평가 완료 전이라도 50%를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.
 - 살처분 이후 양돈농가에 다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최대 매월 337만원을 지원하고,
 - 재입식이 늦어지는 경우 지원기간의 연장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.
 -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 지연, 자돈의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고,
 -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의 상환 연장과 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한편 정부는 국내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며 ASF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금년 5월 북한 ASF 발생 확인 즉시 정부는 접경지역을 통한 유입 등 모든 전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
 -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, 방목사육 금지,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였고,
 -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.
- 또한, 정부는 금년 5월 접경 지역과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신고 없이 총기 포획이 가능하도록 멧돼지 포획 등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바 있으며,
 - 농장에서 ASF가 최초 발생하자 정부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 제한과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외에 야생멧돼지 예찰(발생농장 주변 20km²) 및 ASF 검사, 남은 음식물 급여 제한,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.
- 정부는 이러한 방역조치에도 최근 비무장지대 등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역 외곽의 멧돼지 제거 등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